

「新編諸宗教藏總錄」의 著錄에 관한 研究

金 聖 洙*

〈목 차〉

1. 緒 論	單位著錄
1.1 研究의 目的 및 方法	4.1 書名記述事項
1.2 用語의 定義	4.2 著者事項
2. 「新編諸宗教藏總錄」의 著錄方式	5. 結 論
3. 「新編諸宗教藏總錄」의 著錄	Abstract
4. 「新編諸宗教藏總錄」의 書誌記述	

1. 緒 論

1.1 研究의 目的 및 方法

「新編諸宗教藏總錄」¹⁾은 고려시대에 大覺國師 義天이 대승불교권 전체²⁾의 章疏를 수집하여 이를 책자목록(book catalog) 및 주제명목록(subject catalog)의 개념으로 편성한 11세기 후반(1,090년) 당시의 속장경목록이다. 이 같은 「교장총록」은 속장경목록으로서 세계에서 그 효시(嚆矢)를 이루었기 때문에 한국목록학사뿐 아니라 세계목록학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목록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고려재조대장경목록인 「大藏目錄」은 正藏目錄으로서 가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文獻情報學科 副教授

1) 이하 「教藏總錄」이라 약칭함.

2) 고려를 비롯한 중국(宋)·거란(契丹)·일본 등 전체 대승불교권을 일컫음.

장 정긴(精緊)한 목록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목록이다.

위와 같은 한국 중세 목록들에 관하여, 그동안 서지·목록학계에서는 그 분류체계³⁾나 편성의 내용⁴⁾ 및 사상적 배경⁵⁾과 의미⁶⁾ 등에 대해서 연구·논의된 바 있고, 몽고의 병란으로 인하여 板本은 소실되고 일부의 印本만 현존하는 초조대장경에 관한 목록의 복원에 대한 연구도 현재까지 활발하다.⁷⁾ 그러나 「교장총록」이나 「대장목록」에 대한 저록(著錄)의 방식과 의미 등에 대해서는 아직 그 구체적인 연구가 미진한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교장총록」에 국한하여⁸⁾ 그 목록저록법에 관하여 현대목록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장총록」 저록에 대한 평가 및 가치를 규명하고, 한국목록학사에 있어서 「韓國目錄規則 第3版」에서 채택한 서지기술단위저록의 연원시기는 바로 「신편제종교장총록」이 편성된 11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 3)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3).
金聖洙, “教藏總錄 經部 分類體系의 分析”, 「圖書館學」, 第10輯(1983), pp. 121-148.
金聖洙, “〈大藏目錄〉과 〈箱刷藏目錄〉·〈卍字藏目錄〉의 分類體系에 關한 研究”, 「書誌學研究」, 創刊號(1986), pp. 47-69.
- 4) 金聖洙, “高麗再雕大藏經의 「大藏目錄」에 關한 研究”, 「도서관」, Vol. 41, No. 4(1986. 7. 8), pp. 5-25.
- 5) 金聖洙, “高麗續藏經目錄 編成의 思想的 背景”, 「人文科學論集」 第6輯(淸州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7), pp. 215-235.
- 6)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서울: 汎友社, 1990), pp. 47-81.
- 7) 정원모, “高麗大藏經의 復元”, 「書誌學研究」, 第2輯(1987), pp. 3-108.
姜順愛, “舊大藏目錄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關한 研究: 開元釋教錄과의 比較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第11輯(1995), pp. 75-166.
姜順愛, “舊大藏目錄 杜函-楚函까지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關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12輯(1996), pp. 115-170.
- 8) 「大藏目錄」의 著錄에 關해서는 稿의 題目을 달리하여, 차후에 별도로 논술하고자 한다.

1.2 用語의 定義

1) 著錄(: 記入) 및 基本著錄: ‘저록’이란 용어는 영어의 ‘entry’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entry’라는 용어가 지닌 다의성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제기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종래 ‘기입’이란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그 의미는 목록에서 서명과 발행사항을 포함한 도서의 기록(Cutter, 1904, 19)으로서 현재의 저록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기입의 선정’은 곧 ‘기본기입의 선정’이라고 규정하여(AACR1, 9) 기입과 기본표목을 동일시 하였으며, 이 기본기입이란 개념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AACR2R, 279의 접근점의 선정 참조).

한편 기본기입(main entry)이란 개념을 2가지 의미로 규정하였는데, 그 하나는 완전한 저록 또는 주된 저록으로 규정하여 완전한 서지정보를 수용한 레코드로 규정하였고, 다른 하나는 저록에서 사용한 표목이란 의미가 그것이다(AACR1, 345). 따라서 기입이란 용어는 목록상에서 저록(레코드)·기본저록·표목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었다.

AACR2R에서 이들 개념을 각각 구분하여 개념상의 혼란을 피하고자 하였다. 즉 ‘저록’이란 “목록에서 하나의 자료에 대한 기록”(AACR2R, 617)이며, 기본저록은 “서지자료를 일관되게 식별하고 인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현한 완전한 저록으로서 한 저작에 반드시 하나의 기본저록을 전체로 한다”(AACR2R, 619)라고 규정하였다.⁹⁾

2) 표목: 표목은 “저록 상단에 위치하여 접근점이 되는 이름이나 단어 또는 구”(AACR2R, 618)라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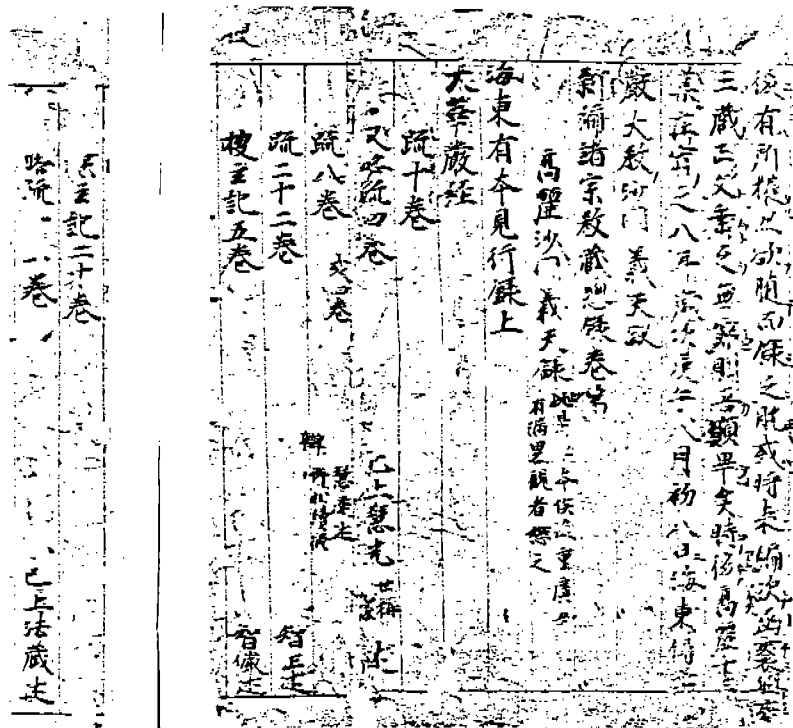
3) 접근점: 접근점은 “서지레코드를 검색하고 식별하기 위한 이름이나 말, 부호”(AACR2R, 615)로 정의한다. 표목과 접근점이란 용어는 의미상 동일한 개념으로서, 저록의 검색수단을 의미한다.

9) 김태수, 「목록학개론」(서울: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996), p. 23.

2. 「新編諸宗教藏總錄」의 著錄方式

「교장총록」은 正藏(대장경)에 관한 개개 연구논저들인 章疏 전체를 3구분(경·율·론)하여 이를 卷第一부터 卷第三까지로 편성하고, 각 권에서는 그 內題目을 “海東有本見行錄”이라 別記하면서 이를 개개의 권을 上·中·下로 附記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독립된 3冊의 책자목록 형태를 갖추고 있다. 「교장총록」의 著錄방식의 사례는 <도 1>·<도 2>와 같다.

<도 1> 「교장총록」(寫本)의 著錄방식¹⁰⁾



10)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韓國高僧集』 高麗時代1 (서울: 景仁文化社, 1974), p. 468.

(도 2) 「교장총록」(刊本)의 著錄방식¹¹⁾

新編諸宗教藏總錄卷第○	
高麗沙門 義天錄 <small>卷之○</small> <small>○本條係撰錄海東有本行錄上</small>	隨師頌義鈔四十卷 <small>○本條係撰錄海東有本行錄上</small>
大華嚴經	演義逐難科一卷 已上道河述
疏十卷	又該鈔逐難科一卷 思孝述
又略疏四卷	眞元疏十卷 道觀述
疏八卷 <small>或曰卷五卷六</small>	論實十五卷 宗密述
疏二十二卷	疏十卷 <small>本是八卷</small> <small>○本條係撰錄海東有本行錄上</small>
授文記 <small>五卷</small> <small>卷一</small> <small>卷二</small> <small>卷三</small> <small>卷四</small> <small>卷五</small>	古法記十卷 <small>卷一</small> <small>卷二</small> <small>卷三</small> <small>卷四</small> <small>卷五</small> <small>卷六</small> <small>卷七</small> <small>卷八</small> <small>卷九</small> <small>卷十</small>
疏文記二十卷	古法記十卷 <small>卷一</small> <small>卷二</small> <small>卷三</small> <small>卷四</small> <small>卷五</small> <small>卷六</small> <small>卷七</small> <small>卷八</small> <small>卷九</small> <small>卷十</small>
時疏十二卷	時疏十二卷 <small>卷一</small> <small>卷二</small> <small>卷三</small> <small>卷四</small> <small>卷五</small> <small>卷六</small> <small>卷七</small> <small>卷八</small> <small>卷九</small> <small>卷十</small> <small>卷十一</small> <small>卷十二</small>
刊定記二十卷	大略法 <small>卷一</small> <small>卷二</small> <small>卷三</small> <small>卷四</small> <small>卷五</small> <small>卷六</small> <small>卷七</small> <small>卷八</small> <small>卷九</small> <small>卷十</small> <small>卷十一</small> <small>卷十二</small> <small>卷十三</small> <small>卷十四</small> <small>卷十五</small> <small>卷十六</small> <small>卷十七</small> <small>卷十八</small> <small>卷十九</small> <small>卷二十</small>
刊定記纂釋二十一卷	論四十卷 宗密述
疏二十卷 <small>本十九卷</small>	合論 <small>卷一</small> <small>卷二</small> <small>卷三</small> <small>卷四</small> <small>卷五</small> <small>卷六</small> <small>卷七</small> <small>卷八</small> <small>卷九</small> <small>卷十</small> <small>卷十一</small> <small>卷十二</small> <small>卷十三</small> <small>卷十四</small> <small>卷十五</small> <small>卷十六</small> <small>卷十七</small> <small>卷十八</small> <small>卷十九</small> <small>卷二十</small>
疏三十一卷	大不空經疏 <small>卷一</small> <small>卷二</small> <small>卷三</small> <small>卷四</small> <small>卷五</small> <small>卷六</small> <small>卷七</small> <small>卷八</small> <small>卷九</small> <small>卷十</small> <small>卷十一</small> <small>卷十二</small> <small>卷十三</small> <small>卷十四</small> <small>卷十五</small> <small>卷十六</small> <small>卷十七</small> <small>卷十八</small> <small>卷十九</small> <small>卷二十</small> <small>卷二十一</small> <small>卷二十二</small> <small>卷二十三</small> <small>卷二十四</small> <small>卷二十五</small> <small>卷二十六</small> <small>卷二十七</small> <small>卷二十八</small> <small>卷二十九</small> <small>卷三十</small> <small>卷三十一</small>
疏二十卷 <small>疏五卷</small>	法界文觀 <small>卷一</small> <small>卷二</small> <small>卷三</small> <small>卷四</small> <small>卷五</small> <small>卷六</small> <small>卷七</small> <small>卷八</small> <small>卷九</small> <small>卷十</small> <small>卷十一</small> <small>卷十二</small> <small>卷十三</small> <small>卷十四</small> <small>卷十五</small> <small>卷十六</small> <small>卷十七</small> <small>卷十八</small> <small>卷十九</small> <small>卷二十</small>
科七卷	法界文觀 <small>卷一</small> <small>卷二</small> <small>卷三</small> <small>卷四</small> <small>卷五</small> <small>卷六</small> <small>卷七</small> <small>卷八</small> <small>卷九</small> <small>卷十</small> <small>卷十一</small> <small>卷十二</small> <small>卷十三</small> <small>卷十四</small> <small>卷十五</small> <small>卷十六</small> <small>卷十七</small> <small>卷十八</small> <small>卷十九</small> <small>卷二十</small>
科二十卷 大科一卷	法界文觀 <small>卷一</small> <small>卷二</small> <small>卷三</small> <small>卷四</small> <small>卷五</small> <small>卷六</small> <small>卷七</small> <small>卷八</small> <small>卷九</small> <small>卷十</small> <small>卷十一</small> <small>卷十二</small> <small>卷十三</small> <small>卷十四</small> <small>卷十五</small> <small>卷十六</small> <small>卷十七</small> <small>卷十八</small> <small>卷十九</small> <small>卷二十</small>

11)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韓國佛敎全書」第四冊(서울: 東國大學敎出版部, 1990), p. 680.

이제 논술의 편의를 위하여, <도 1>·<도 2>에서의 저록방식의 일부를 인쇄 형식으로 옮기면 다음의 <사례 1>과 같다.

<사례 1>

海東有本見行錄上

大華嚴經

疏十卷

又略疏四卷

疏八卷 或四卷

二十二卷

⋮

大涅槃經

⋮

⋮

大毘盧遮那佛神變加持經(大日經)

⋮

⋮

法華經

(諸經書名羅列)

已上慧光世稱述
光錄
慧遠述
辯相續修
智正述

위의 <사례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교장총록」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용한 목록기술법을 현대적 관점에서 논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총록」은 ‘첫줄내쓰기(hanging indention)식’의 기재형식¹²⁾을 취하면서 章疏의 피연구주제명인 불전명을 표목으로 채택하고, 이 표목 아래에서는 서명(章疏)순으로 기술한 서지기술단위저록이라 볼 수 있다.

둘째, 표목의 개념 아래에서 기술한 서지기술단위저록방식의 목록기술법에서는 동일한 불전명은 생략하면서 ‘疏○○卷’이라 서명저록사항을 표기하고 있다.¹³⁾ 여기에서 異卷數가 있으면 小字雙行으로 기입하고 있다. 다시 말하

12) 리재철, 「韓國目錄規則」第3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83), p. 27.

13) 예컨대, ‘疏十卷’이라 함은, 그 完全書名은 ‘大華嚴經疏十卷’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大華嚴經’은 표목에서 이미 기술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疏十卷’의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여, 「교장총록」 각 章疏名의 저록에서는 계속 반복하여 중복되는 주제명 즉 佛典名은 생략하고, 해당 章疏의 章·疏·科·玄義·注·了義·判定記 등등의 식별요소와 권수를 증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셋째, 서명 다음에는 서지기술단위저록방식의 두번째 요소인 저자명에 대하여 ‘○○述’이라 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일저자로서 여러 종의 章疏를 차례대로 기입할 때는 맨 나중의 서명 아래에 1회에 한하여 저자명을 기입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각각 장을 달리하여 아래와 같이 논술하고자 한다.

3. 「新編諸宗教藏總錄」의 著錄

위의 <사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천이 「교장총록」을 편성하는데 있어서의 사용한 저록에 대하여 현대적 관점에서 논술하면 다음과 같다.

「교장총록」에서는 경·율·론 三藏에 대한 대승불교권 전체의 章疏들을 배열하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의 분류체계 즉 표목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의천은 자신이 몸소 수집한 신라와 중국·거란·일본 등지에서 논술된 1,010部 4,857권이 되는 방대한 章疏들을 배열하는데 있어서, 각 章疏의 피연구주제명이라 할 수 있는 佛典名(예컨대 華嚴經, 涅槃經, …, 梵網經, …, 大乘起信論 등) 아래에 해당 章疏를 한꺼번에 밀접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의천은 각 章疏의 피연구주제불전의 書名을 그 주제명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이 주제명을 전체 장소를 분류하는데 있어서의 표목의 준거로 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의천은 속장경목록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불교분류체계라 할 수 있는 여러 教相判

釋¹⁴⁾ 중 그 어떤 교상판석에도 의존하지 않고, 「교장총록」의 분류체계를 별도로 수립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장총록」의 분류체제는 첫째, 의천 그 자신이 “聖師”라 지칭하며 그토록 존경하였던 원효¹⁵⁾의 교상판석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에서 章疏들을 수집할 당시 ‘고려에 천태종을 창립하겠다’¹⁶⁾는 서원을 세우게 하였던 장본인인 천태·지의(天台智顛)의 五時八教判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의천 자신이 소속하였던 화엄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중국 화엄종의 거두 현수·법장(賢首法藏)의 五教判을 비롯한 그 어떤 教相判釋들도 굳이 외면하였음을 보아도, 「교장총록」의 분류체계 즉 표목이 특이(特異)함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천이 별도의 분류체계를 수립하여 「교장총록」을 편성한 점에는 필경 분명한 緣由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천은 「교장총록」의 분류체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教學觀에 입각하여 諸章疏에 대한 독특한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이 분류체계의 순서에 따라서 「교장총록」을 편성하였다¹⁷⁾고 볼 수 있다. 즉 의천은 “刊定成唯識論單科序”에서

14) 여러 교상판석 및 그 비교에 관한 사항은,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분류체계에 관한 研究,” pp. 62-70, 74-75. 參照.

15) 義天, “祭芬皇寺曉聖文,” 「大覺國師文集」 卷第十六,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p. 555.

義天, “禮芬皇寺曉聖像,” 「大覺國師文集」 卷第十八,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p. 560.

義天, “讀海東教述,” 「大覺國師文集」 卷第二十,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p. 565. 등 參考.

16) 義天, “天台塔下親參發願疏,” 「大覺國師文集」 卷第十四,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pp. 551-552. 參考.

17)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研究,” pp. 129-130.

俱舍(論)를 배우지 않고는 小乘의 說을 알 수 없으며, 唯識(論)을 배우지 않고서 어찌 始敎의 宗을 볼 수 있으며, (大乘)起信(論)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終頓의 旨를 밝힐 수 있겠는가. 그리고 華嚴(經)을 배우지 않고는 圓融의 (法)門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진실로 얕음으로써는 깊음에 이르지 못하나, 깊음은 반드시 얕음을 겸하는 것이니, 그것은 理數가 그런 것이다.¹⁸⁾

라 하여, 그의 교학관이라고 볼 수 있는 '1)圓融의 門, 2)終頓의 旨, 3)始敎의 宗, 4)小乘의 說'을 제시하고, 아울러 「華嚴經」과 「大乘起信論」 및 「唯識論」 등에 대한 학습을 중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하여 의천은, 위와 같은 교학관과 주요불전에 입각하여, 자신이 몸소 수집한 대승불교전 전체의 방대한 章疏들을 편목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표 1> 및 <표 2>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경·율·논의 번호순에 의한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이같은 분류체계의 주제명을 표목으로 삼아, <사례 1>과 같은 목록방식인 「교장총록」을 편성하였던 것이다.

결국 의천이 「교장총록」에서 독특한 분류체계를 수립한 緣由는, 그가 수집한 방대한 章疏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분과 확연한 식별을 기하고, 아울러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인 목록의 편성을 위하여 각 章疏의 皮연구주제불전명을 선택하여 표목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의천은 이같이 皮연구주제명을 표목으로 삼고, 게다가 첫줄내쓰기(hanging indentation)식의 기재형식을 취하였다. 동시에 두번째 줄 이하에서 기술하는 서지기술단위저록과의 확연한 구별을 두어 「교장총록」을 편성한 것은 분명 탁견(卓見)이라 할 수 있다.

18) 義天, “刊定成唯識論單科序,” 『大覺國師文集』 卷第1, 『韓國佛教全書』 第四冊, 高麗時代篇一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92), p. 529.

“不學俱舍 不知小乘之說 不學唯識 寧見始敎之宗 不學起信 豈明終頓之旨 不學華嚴 難入圓融之門 良以淺不至深 深必該滅(深) 理數之然也”

(丑 1) 敎藏總錄 經部 分類體系¹⁹⁾

義天의 敎學觀	經部 區分	主要經	各 經	備考 I	備考 II
				賢首의 五敎	思 想
圓融의 門	A	華嚴經	①華嚴經 ②涅槃經 ③大日經 ④法華經 ⑤無量義經	圓 敎	唯心思想
終頓의 旨	B	楞伽經	⑥楞伽經 ⑦首楞嚴經 ⑧圓覺經 ⑨維摩經 ⑩金光明經	終 敎 頓 敎	起信論 一思想
	C	(般若部)	⑪仁王經 ⑫金剛般若 經 ⑬般若理趣分經 ⑭大品般若經 ⑮般若心經 ⑯六度羅密經	空始敎	「中觀思想」 般若(中道)思想
	D	金剛三昧經	⑰金剛三昧經 ⑱勝鬘 經 ⑲不增不減經 ⑳諸法無行經 ㉑般舟三昧經 ㉒(注)思益經 ㉓無上依經	終 敎	如來藏思想
始敎의 宗	E		㉔解深密經	相始敎	唯識思想
(其他)	F		㉕大實積經 ㉖本生心地觀經		
	G		㉗文殊說般若經		文殊淨土思想
	H	(彌陀信仰)	㉘觀無量壽經 ㉙大無量壽經 ㉚小阿彌陀經 ㉛稱讚淨土經		阿彌陀淨土思想
	I	(彌勒信仰)	㉜彌勒上生經 ㉝彌勒下生經 ㉞彌勒成佛經		彌勒淨土思想
	J	(藥師如來信仰)	㉟藥師經 ㊱灌頂經		藥師如來淨土思想
	K		㊲方廣經 ㊳四十二章 經 ㊴溫室經 ㊵孟蘭盆 經 ㊶報恩奉盆經 ㊷無 常經 ㊸天請問經		
	L	(陀羅尼系統)	㊹清觀音經 ㊺消災經 ㊻八大菩薩曼陀羅經		密敎經典
小乘의 說				(小乘敎)	

19)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研究,” p. 97.

〈丑 2〉 教藏總錄 論部 分類體系²⁰⁾

義天의 教學觀	論部區分	主要經	論部 各論의 排列順序	備考Ⅰ	備考Ⅱ	備考Ⅲ
				賢首教判	根幹經	思想
圓融의 門				(圓教)	(華嚴經)	(華嚴經 唯心思想)
終頓의 旨	A	第3期の 大乘論	①大乘起信論 ②釋摩訶衍論	終教	楞伽經	起信論 一心思想
始教의 宗	B	瑜伽(師地)論 攝大乘論 (唯識三十論) 成唯識論	③成唯識論 ④百法論 ⑤因明論 ⑥正理門論 ⑦瑜伽論 ⑧五蘊論 ⑨顯揚論 ⑩攝大乘論 ⑪雜集論 ⑫中邊論 ⑬唯識二十論 ⑭成業論 ⑮觀所緣論	相始教	解深密經	(解深密經의 有思想을 主軸으로 한 彌勒·無著의 中道思想) 彌勒·無著系의 有思想
	C	中觀論 十二門論 百論	⑯掌珍論 ⑰法界無差別論 ⑱中觀論 ⑲百論 ⑳廣百論 ㉑十二門論 ㉒三論宗要 ㉓大智度論	空始教	般若經	(般若經의 空思想을 主軸으로 한 龍樹의 中道思想) 龍樹系의 空思想
	D	大乘釋經論	⑳十地經論 ㉔法華論 ㉕道教經論			
小乘의 說	E	小乘論 俱舍論	㉖阿毘曇論 ㉗大毘婆沙論 ㉘俱舍論 ㉙順正理論 ㉚藏阿毘曇心論 ㉛異部宗輪論	小乘教		

20)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研究,” p. 119.

왜냐하면, 이는 다음과 같은 두어가지의 견해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당시 중국에서도 정장목록만 존재하였을 뿐 속장의 기본이 되는 章疏의 수집에 관하여는 그 어떤 대가(大家)라 할지라도 엄두도 못낼 상황이였다. 따라서 중국에서 속장경에 관한 기존의 준거할만한 목록이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천이 세계최초의 속장경목록인 「교장총록」을 편성하면서, 각 章疏의 피연구주제불전명을 표목의 대상으로 삼고, 이 표목을 해당 분류군(分類群)의 첫째줄에 기술하는 목록의 형식까지 창출한 점에 그 위대성이 있다.²¹⁾ 이는 현대목록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목록의 기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써의 표목은 ‘저록 배열시 표목을 배열의 기준으로 삼으며, 표목은 당연히 검색의 수단이 되고, 동일표목의 집중을 통해 관련저작을 목록상에서 한자리에 모을 수 있다’²²⁾고 하는 현대목록학에서의 표목의 기능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을 11세기후반 당시에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보아 그러하다.

둘째, 예컨대 「교장총록」에서는 ‘華嚴經’이라는 저작(저작단위)을 저록의 대상으로 삼아(즉 표목으로 선정함으로써), 하나의 저작단위 아래에 화엄경과 관련한 수많은 모든 章疏들(즉 서지단위)을 한자리에 집중시키고 있다. 즉, 「교장총록」에서는 피연구주제명의 불전명을 표목으로 채택하여 이를 개개의 章疏書名(서지단위) 전체를 대표하는 저작(저작단위)을 저록의 대상으로 채택함으로써, 피주제명과 관련된 모든 章疏를 단일표목(저작단위) 아래의 한자리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교장총록」에서 표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각 章疏 피연구주제의 불전명을 채택하였다는 것은, 현대목록학에 있어서 ‘저작단위(literary unit)를 저록의 대상으로 삼는다’²³⁾는 원칙에 비견할 만큼 그 탁월성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이는 현대목록학에서, 기

21) 이는 당시 寫經目錄과 刊經目錄의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최판대장경목록인 「開元釋教錄」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극명하게 그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22) 김태수, 「목록학개론」, p. 24.

23) Eva Verona, "Literary Unit versus Bibliography Unit," *Libri*, Vol. 9, No. 2 (1950), pp. 79-82. 參考.

본표목은 <특정 저작과 관련된 상이한 제판을 목록상에서 저작단위로 한자리에 집중하는 기능인 ‘특정 저작의 제판 집중기능’²⁴⁾을 만족시킬 만큼 탁월하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新編諸宗教藏總錄」의 書誌記述單位著錄

「교장총록」에서는, <사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록의 대상이 되는 章疏들의 서명과 권수 및 저자명의 기술(記述)을 위하여, 그 기술에서 서명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저자표시를 하는 이른바 ‘서지기술단위저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1 書名記述事項

「교장총록」에서는 1,010부 4,857권이나 되는 방대한 章疏를 편목하기 위하여, 각 표목 아래에서 개개 章疏의 서명저록을 위하여 표목과 동일한 불전명은 생략하면서 ‘○○卷’ 등이라 서명사항을 표기하고 있다(여기에서 異卷數가 있으면 小字雙行으로 기입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각 章疏名の 저록에서는 계속 반복하여 중복되는 주제명 즉 佛典名은 생략하고, 해당 章疏의 ‘章·疏·科·玄義·注·了義·刊定記’ 등의 식별요소와 권수를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장총록」의 서지기술단위저록방식은 서명을 저자명보다 앞세우는 방식이다. 종래 서양의 저록방식은 저자선기입이었으나, 1974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에서 서명선기입론을 채택한 바 있다.²⁵⁾ 여기에서, 특히 리재철 교수는 서명저록이 검색도

24) 김태수, “표목의 기능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제12권 제2호(1995. 12), pp. 15-17.

25) 리재철·현규섭 역주, 「국제표준서지기술법(단)」(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6), p. 4.

구로서 저자저록에 비해 직접적인 검색방법임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서명선기입이 목록발달사상 저자선기입보다 한걸음 더 발달된 형태이며, 목록 이론상 저작에의 직접접근책이란 점에서 저자명을 한단체 거쳐서 간접적으로 저작에 접근하는 서양의 저자선기입보다 우위(優位)에 서는 것”이므로 목록의 이론상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며, 종래의 손(手工)에 의한 서지정보의 처리법에서 컴퓨터 등의 기계적 처리법으로 그 공정이 넘어감에 따른 필연적인 조치라고 보는 것이다.²⁶⁾

라 하였다. 이로 보아, 서구에서도 표목으로서의 저자명은 그 저자의 전체 저작물에 대한 식별기호이지 특정 도서에 대한 식별기호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서명에 그 중요성을 두었다²⁷⁾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에의 직접접근이란 면에서 저자명을 거쳐 서명으로 검색하는 간접적인 저자저록보다 직접 서명으로 검색하는 서명저록이 목록이론상 논리적이고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²⁸⁾ 「교장총록」의 서지기술단위저록방식은, 위와 같은 현대 목록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1세기 후반 당시에 의천이 속장경목록을 위한 서지기술단위저록방식을 선도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목록학사에서, 근자에 「한국목록규칙 제3판」에서 채택한 서지기술단위저록방식의 연원은 바로 「新編諸宗教藏總錄」에서 기인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현대목록학에서는, 목록의 기능을 크게 2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집서 중에서 특정 저작을 식별하여 검색하는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과 특정 저작의 상이한 판을 목록상에서 한자리에 집중하는 기능이다.²⁹⁾ 이같은 목록기능의 관점을 「교장총록」의 서지기술단위저록방식에 대입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6) 리재철, “역자의 말,” 「국표서기(단)」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76), p. 5.

27) A. Domanovszky, *Functions and Objects of Author and Title Cataloging*, München, Verlag Dokumentation, 1975, pp. 36-37.

28) 리재철, “역자의 말,” p. 5.

29) 김태수, 「목록학개론」, p. 4.

첫째, 예컨대 <사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疏十卷, 又略疏四卷, 搜玄記五卷, 探玄記二十二卷, 科七卷」 등으로 그 서명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이같이 서명기술사항에서 표목과 동일하여 중복되는 특정 章疏 전부를 그 식별이 용이하게 생략하는 기법을 취하면서, 해당 章疏의 ‘章·疏·科·玄義·注·了義·刊定記·搜玄記·探玄記’ 등등의 식별요소와 권수단을 기술함으로써 각 章疏의 식별성을 최대한 높여주고 있다. 이로써 「교장총록」 서명기술사항의 서지기술단위저록방식은 현대목록학에서 특정저작을 식별하여 검색시키는 기능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위와 같은 「교장총록」의 목록기술법은, 특정 저작 즉 예컨대 ‘華嚴經’이라는 표목(단위저작) 즉 경·율·논 삼장(三藏)의 개개 불전명(佛典名) 아래에서 속장경에 入藏되는 표목(화엄경 등)과 관련한 모든 章疏들을 목록상에서 한자리에 집중시킴으로써, 표목(단위저작)과 관련한 諸章疏들의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해 주고 있다. 이로써 「교장총록」 표목(단위저작)의 목록기술법은 목록현대목록학에서 특정저작의 상이한 판을 목록상에서 한자리에 집중시키는 기능을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장총록」 서명기술사항에서는 현대목록학에서 중요시하는 목록의 2가지 기능을 충실하게 만족시켜 주고 있는 탁월한 목록임을 파악할 수 있다.

4.2 著者事項

「교장총록」의 서지기술단위저록방식에서, 서명과 권수를 표기하고 난 이후에 저자명에 대하여, 예컨대 ‘智正述’ 등으로 ‘智正’이라는 저자의 法名을 먼저 표기하고 연이어 ‘述’이라고 明記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명의 世稱名이나 저자의 俗性 또는 或名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小字雙行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저자명이 不明일 경우에는 ‘亡名’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후대(後

代)에 그 저자명을 파악할 때 추가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자사항에 있어서 추가저록의 유연성(flexibility)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교장총록」 저자기술사항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각 章疏의 저자가 起文初記者(즉 최초의 저자)일 경우에는 ‘述’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밖의 章疏에서는 해당 章疏의 編纂者 등 그 章疏와 관련된 인물의 法名을 표기하고, 연이어서 ‘集’·‘說’·‘頌’·‘刊纂’·‘注’·‘錄’·‘編’ 등으로 간결하게 明記함으로써 저자사항과 해당 章疏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장총록」의 저자기술사항에서는 저자명사항 하단에서 著者·集者·說者·頌者·刊纂者·注者·錄者·編者 등을 일일이 엄격하게 구분하여 적기(摘記)함으로써 논리성(logicality)과 간결성(compactness) 및 식별성을 최대한 높여주고 있음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교장총록」 서지기술단위저록의 특징은, 첫째 서명기술에서 표목과 중복되는 제목을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둘째 저자명기술에서 저자의 범명만을 채록하거나, 셋째 해당 章疏에서 저자명과 그밖의 관련있는 기타 人名과를 엄격히 구별·식별하는 방식 등은 와이너(B. S. Wyner)가 제시한 목록의 조건에서, 1) 논리성(logicality), 2) 유연성(flexibility), 3) 신속성(quick-ness), 4) 간결성(compactness), 5) 경제성(economic)의 조건³⁰⁾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장총록」 저록의 우수성을 증명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結 論

이상의 본론에서 「교장총록」의 저록방식에 관하여 논술하고, 이를 현대목록학의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이제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결

30) 김태수, 「목록학개론」, p. 9.

론으로 삼으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의천은 그의 교학관이라고 볼 수 있는 '1)圓融의 門, 2)終頓의 旨, 3)始敎의 宗, 4)小乘의 說'을 제시하고, 아울러 「華嚴經」과 「大乘起信論」 및 「唯識論」 등에 대한 학습을 중시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의천은, 그의 교학관과 중요시한 주요불전에 입각하여, 자신이 몸소 수집한 대승불교권 전체의 방대한 章疏들을 편목하는데 있어서 <표 1> 및 <표 2>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경·율·논의 번호순에 의한 분류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이같은 분류체계의 주제명을 표목으로 삼아, 특별한 목록방식인 「교장총록」을 편성하였던 것이다. 결국 의천이 「교장총록」에서 독특한 분류체계를 수립한 緣由는, 그가 수집한 방대한 章疏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분과 확연한 식별을 기하고, 아울러 간결하면서도 체계적인 목록의 편성을 위하여 각 章疏의 피연구주제불전명을 선택하여 표목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둘째, 「교장총록」의 저록방식은, 1) '첫줄내쓰기(hanging indention)식의 기재형식'을 취하면서, 章疏의 피연구주제불전명은 의천의 敎學觀에 의거한 독특한 분류체계의 순서에 근거하여 표목(주제명표목)을 채택한 서명저록이라 파악할 수 있었다. 2) 표목의 개념 아래에서 서지기술단위저록방식의 목록기술법으로서, 각 章疏의 서명저록에서는 표목과 동일한 불전명은 생략하면서 '○○卷'이라 서명저록사항을 표기하고 있다.³¹⁾ 즉 「교장총록」 각 章疏名の 저록에서는 계속 반복하여 중복되는 주제명 즉 佛典名은 생략하고, 해당 章疏의 '章'·'疏'·'科'·'玄義'·'注'·'了義'·'判定記' 등의 식별요소와 권수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3) 서명기술사항 아래에 서지기술단위저록방식의 두번째 요소인 저자명에 대하여는 '○○述' 등이라 표기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동일저자로서 여러 종의 章疏를 차례대로 기입할 때는 맨 나중의 서명 아래에 1회에 한하여 저자명을 기입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31) 여기에서 巽卷數 등이 있으면 小字雙行으로 附記하고 있다.

셋째, 위와 같은 「교장총록」의 저록방식에 관하여 현대목록학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결과,

1) 「교장총록」의 기본저록에서는, 章疏의 피연구주제불전명을 표목(저작단위)으로 채택하여 여기에 해당 章疏群(서지단위)을 집중시키고, 아울러 각 표목의 첫줄내쓰기(hanging indention)식으로 기술하는 편목의 형식까지 창출한 것은 현대목록학에서의 중요한 2대기능인 ‘저작단위 집중(assembly function of literary unit) 기능’과 ‘특정 저작 식별 및 검색 기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탁월한 목록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교장총록」의 저록에서는 서명선기입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는 현대목록학에서 ‘저작에의 직접접근이란 면에서 저자명을 거쳐 서명으로 검색하는 간접적인 저자저록보다 직접 서명으로 검색하는 서명저록이 목록이론상 논리적이고 우위에 있음’에 비추어 보아, 현대목록학이 추구하는 ‘국제적인 목록의 표준화 및 서지기술 통일’ 측면에서도 조금도 어긋나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이같은 측면은 오히려 11세기후반 당시에 의천이 속장경목록을 위한 「교장총록」의 저록방식에서 선도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목록학사에서, ISBD 및 「한국목록규칙 제3판」에서 채택한 서명저록방식의 연원은 바로 「新編諸宗教藏總錄」에서 기인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3) 「교장총록」저록의 또다른 특징은, 서명기술에서 표목과 중복되는 제목을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해당 章疏의 章·疏·科·玄義·注·正義·判定記 등의 식별요소를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저자명기술에서는 저자의 범명만을 채록하거나, 해당 章疏와 관련있는 기타 저자사항의 人名을 엄격히 구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해당정보에 관한 식별요소와 검색요소를 동시에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또하나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교장총록」의 서지기술단위저록은 와이너(B. S. Wyner)가 제시한 목록의 조건에서, ①논리성(logicality), ②유연성(flexibility), ③신속성(quickness), ④간결성(compactness), ⑤경제성(economic)의 조건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장총록」의 저록에 관한 탁월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義 天. “刊定成唯識論單科序.” 「大覺國師文集」卷第1. 『韓國佛教全書』第四冊. 高麗時代篇一.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92, p. 529.
- 義 天. 「新編諸宗教藏總錄」(寫本). 『韓國高僧集』高麗時代1. 서울: 景仁文化社, 1974, pp. 483-574.
- 義 天. 「新編諸宗教藏總錄」. 『韓國佛教全書』第四冊.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90, pp. 679-697.
- 義 天. “祭芬皇寺曉聖文.” 「大覺國師文集」卷第十六. 『韓國佛教全書』第四冊. p. 555.
- 義 天. “禮芬皇寺曉聖像.” 「大覺國師文集」卷第十八. 『韓國佛教全書』第四冊. p. 560.
- 義 天. “讀海東教述.” 「大覺國師文集」卷第二十. 『韓國佛教全書』第四冊. p. 565.
- 義 天. “天台塔下親參發願疏.” 「大覺國師文集」卷第十四. 『韓國佛教全書』第四冊. pp. 551-552.
- 姜順愛. “舊大藏目錄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研究: 開元釋教錄과의 比較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第11輯(1995), pp. 75-166.
- 姜順愛. “舊大藏目錄 杜函-楚函까지의 初雕大藏經 構成體系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12輯(1996), pp. 115-170.
-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3.
- 金聖洙. “教藏總錄 經部 分類體系的 分析.” 「圖書館學」, 第10輯(1983), pp. 121-148.
- 金聖洙. “『大藏目錄』과 『縮刷藏目錄』·『卍字藏目錄』의 分類體系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創刊號(1986), pp. 47-69.
- 金聖洙. “高麗再雕大藏經의 「大藏目錄」에 관한 研究.” 「도서관」, Vol. 41, No. 4(1986. 7. 8), pp. 5-25.
- 金聖洙. “高麗續藏經目錄 編成의 思想的 背景.” 「人文科學論集」第6輯(清州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7), pp. 215-235.

- 김태수. “독일목록규칙의 주기입법에 관한 연구—영미목록규칙 및 서명주기 입법과의 비교분석—.”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 김태수. 「목록학개론」. 서울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996.
- 김태수. “표목의 기능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제12권 제2호(1995. 12), pp. 9-35.
- 리재철. 현규섭 역주. 「국제표준서지기술법(단)」.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76.
- 정필모. “高麗大藏經의 復元.” 「書誌學研究」, 第2輯(1987), pp. 3-108.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 汎友社, 1990.
- 한국도서관협회. 「韓國目錄規則」第3版.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83.
- Domanovszky, A. *Functions and Objects of Author and Title Cataloging*, München, Verlag Dokumentation, 1975.
- Verona, Eva. “Literary Unit versus Bibliography Unit,” *Libri*, Vol. 9, No. 2(1950), pp. 79-104.
- Wynar, Bohdan S. *Inte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7th ed. by Arlene G. Taylor. Littleton : Libraries Unlimited, 1985.

A Study on the Entry of 「Sinpyon-jejong-kyojang-chonglok(新編諸宗教藏總錄)」

Kim, Sung -Soo*

〈Abstract〉

「Sinpyon-jejong-kyojang-chonglok(新編諸宗教藏總錄)」 is a bibliography and subject catalog, called 「Sokjangkyoung-catalog(續藏經目錄)」, which was introduced in Coryo dynasty. It was developed by 「Degakguksa(大覺國師) Yuichun(義天)」 in 11th century(1090) and holds an important feature in Korean cataloging history as well as in the world cataloging history as the first 「Sokjangkyoung-catalo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ntry description of 「Kyojang-chonglok(教藏總錄)」 and analyzes it in the contemporary perspective of Cataloging Rules.

The study has found that the 「Kyojang-chonglok」 follows the 'title main entry method'. Since the modern approach applies direct method which utilizes title, rather than indirect method which utilizes author name, we could safely assume that 「Kyojang-chonglok」 follows the modern principles such as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eong-Ju University

standardization of cataloging and unification of bibliographical description. We could also extend our findings to conclude that 「Sinpyon-jejong-kyojang-chonglok」 created a foundation for modern 'title main entry system' such as ISBD and KCR3.

Also,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Kyojang-chonglok」 meets the conditions of B. S. Wyner, shown in the below.

- 1) logicality
- 2) flexibility
- 3) quickness
- 4) compactness
- 5) economic